

"나의 목적은 한지의 원초적 특징인 스며듦을 이용해 채색을 하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붓의 아날로그적 기능을 이용해 내가 목격한 풍경의 원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추니박 작가노트 중에서

장르 추니박(Genre Chuni Park). 새로운 경지에서 기존에 보지 못한 새로움을 보여주는 작가들을 우리는 '장르를 개척한 화가'라고 말한다. 한지의 본질을 버리지 않고 세계 각국의 유구한 자연을 스며들 듯 연결한 작업'들은 동양화의 필선과 만난 '빛-색(the color of light)'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모필에 에너지와 한지의 속성을 잘 살린 그림들은 동아시아의 필선 문화와 빛을 연구해 온 서구 색면문화의 장점을 융합한 '종합주의'적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아시아의 모필(毛筆)과 서구적 색면(色面)의 글로벌리즘

해외 사생 여행 중 얻은 작가의 깨달음은 전 세계의 경관들을 동양화붓으로 평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오리건과 애리조나, 유타주 등을 여행하며 재현한 풍경들은 어떤이도 도전하지 못한 '사생 기행이자 현장 기록(Sketch travel and on-the-spot record)'이다. 겸재 정선(鄭敼, 1676~1759) 시대의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가 '한국의 내재적 근대화'의 첫걸음이라면, 추니박의 사생 풍경들은 그랜드캐년·요세미티·캘리포니아 등 미국서부지역 광활한 자연과 숲길의 경험에서 체득한 'K 방식의 글로벌자연기행'이었다. '검은 모노크롬' 같던 이전 시대의 먹은 묵직한 에너지로 바탕이 되고, 대지의

에너지가 불타는 색채의 향연은 '필획에 대한 자신감과 여유' 속에서 완성된다. '보고 기록하고 소요(逍遙)하는 작가의 자기 극복의 과정은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낯설고도 설레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박병춘이라는 실명의 끝자인 '춘'을 어린 시절 친구들이 부르던 명칭과 결합한 'Chuni'라는 영문명도 '글로벌한 작가로의 도약' 때문이었다. 미국 LA 아트페어의 성공을 전후해 다양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작가는 "글로벌한 경향 속에서 모필 하나로 한국화의 가능성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한다. 실제로 많은 한국화 전공의 후배들은 먹을 바탕삼은, 추니박의 낯선 새로움에서 'K-한국화'의 미래를 발견한다. 엄청난 크기로 압도하는 '수묵 산수'가 단순한 색의 과감한 대비 속에서 '호방한 단색풍경'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작가는 "한국화는 아직 한 번도 자기혁신을 통해 세계에 도전한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 자기만의 묘법(描法)을 '추니_스타일'로 활용해 온 작가는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꼬불꼬불한 필선 '라면 준법'을 개발했다. 추니박의 세계화 브랜드는 이렇듯 전통 필법 자체를 '자기 스타일'로 바꿔 색면과 연동한 '동·서 미감의 결합'에서 출발한다. 동아시아 산수화(山水畵)에서 사용하는 조감법을 평면화하면서도, 자신만의 채색을 가미해 사물의 본질과 실존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국제성은 2001년 혼자 떠난 인도 배낭여행이 계기였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을 낙서 그림처럼 표현했고, 이를 선보인 뉴욕 전시에서 선묘(線描) 중심의 작품들을 본 현지인들이 유럽에서 공부했느냐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때 느낀 모필의 깨달음은 "나만의 것을 세계적으로 만들자. 서구적 모방을 접고 완전한 한국적 감성으로 세계인들을 감동시켜야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진 것이다. 추니박의 붓은 모든 것을 표현한다. 붓과 일체 된 작가적 깨달음은 결국 어떤 대상도 '자화일체(自畵一切)'의 시선 속에서 동화되었고, 형상·대상·자연 등이 손과 연결된 에너지로 표출되었다. 작가는 이러한 체험을 위해 무수한 독서량을 소화한다. 세계적 석학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c

Mason Diamond)의 베스트셀러인 『총, 균, 쇠- 인간 사회의 운명을 바꾼 힘』을 본 작가는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가? 왜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의 정복과 지배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질문하게 되었다. 생물학·인류학·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통해 장대한 인류사를 풀어낸 책의 지혜는 '전 세계를 소요(逍遙)하며 종합적 미술'을 실천하겠다는 작가의 관점에 확신을 심어 준 것이다.

자화 풍경(Self-Scape), 혁신을 통한 장르 개척

글로벌리즘을 향한 추니박의 다짐은 "내가 쓰고 있는 재료를 발전시켜야 한다. 한지와 모필의 특징을 획득해 산수(자연풍경)를 채집하고, 이를 내 안의 풍경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자기 실천을 낳았다. 작가는 이를 위해 절벽 위에 실재하는 빨간 소파를 놓거나, 풍경 안에 우체통을 가미하는 등 실제 사용해온 물건들을 대자연의 화면과 묘하게 결합한다. 초현실적 데페이즈망(dépaysement)의 기법은 멀리서 차용한 것이 아닌 작가의 에너지로 완성된 것이다. 까만 필선 위에 담긴 플랫한 아크릴의 색감은 이렇듯 본질적 필선과 감각적 색면의 조화 속에서 연결된다. 작가의 작품을 들여다보자. 하늘이 보이거나 하면 여름인지 봄인지 모르는 계절이 펼쳐진다. 모든 시간을 머금은 '지금- 여기'를 품은 무화(無化)된 본질의 자연이 펼쳐진다. 바람이 부는 날과 맑은 날의 구름이 다르다는 깨달음은 그림 안의 자유를 안다는 것이다. 네바다 지역의 구름은 변화적 속성을 지녔다. 구름 자체는 늘 존재하지만, 그 외형이 끊임없이 변화하듯이, 작가의 그림에서 구름은 자기 실체적 변화를 보여주는 매개체이다. 작가는 오늘도 본질을 남긴다.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고이지 않는 물 같은 작가로서의 시선. 향후엔 미국의 풍경에서 힌트를 얻은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다양한 추상 풍경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충북 영동 출신인 작가는 학창 시절 서예 선생이었던 작은 아버지 덕분에 종이와 맞닿는 삶을 살았고. 어린 시절부터 늘 붓과 일체화된 삶을 실천했다. 20대 초반 방랑의 시기를 보낸 작가는 늦은 나이에 홍익대 동양화과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 첫 작업부터 모필을 삶과 일체한 탓에 90년대 중반 이후의 그림은 낙서와도 같은 독일표현주의의 시각을 보여주었다.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세한도(歲寒圖)에서 보이는 '사람과 일체된 그림'이 이미 초기 화면에서 예측된 것이다. 작가의 작업실 벽에는 빼곡한 현장성 있는 글자들로 가득하다. 하나의 감성 시(詩)를 보는 듯한 작가의 에너지는 향후 다양한 풍경 속에 '어떠한 문학적 서사'와도 결합 가능성을 시사한다. 작가는 한지 위의 모필로 자기 혁신을 이루는 중이다. 현장에서 오는 에너지와 오리지널리티를 통한 정면승부를 통해 찰나의 각성을 이뤄낸 것이다.

현장 산수의 강렬함은 수많은 스케치 속에서 이루어진 '자기 변혁의 결과'이다. 강렬한 색채 속에서 꿈틀거리는 동양의 선들이 연결되면서 자연풍경은 '한국인의 문화적 밈(K-cultural meme)'을 담은 동시대 다이너미즘(dynamism)으로 연결된다. 눈으로 획득한 자연의 본질들은 <검은 풍경> <흐린 산수> <낮선, 어떤 풍경> <흐르는 풍경> <채집된 산수>에 이은 또 하나의 'K-아트 브랜딩' 방식을 낳은 것이다. 작가는 생고무로 작업한 '고무 산수', 라면으로 설치한 '라면산수', 칠판에 그린 '칠판산수' 등에서 '존재하지만 사라지는 오늘의 문화'를 다양한 재료의 속성으로 해석한 바 있다. 그 안에서 얻은 결론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도전이었다. 통하여 전한다는 '전통(傳統)'의 확장성 속에서 '시간과 감각'을 결합한 진폭이 넓고 막힘이 '자화 풍경(Self-Scape)'를 그리고자 한 것이다. 추니박은 한국화의 가능성을 아트마켓·비엔날레·미술관 같은 시스템의 문제로 보기보다, 자기 개척을 통한 충만한 자유 속에서 획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감한 원색 속에서도 빛

나는 필선들은 추니박이 획득한 '주저함 없는 완성미'의 결과이다. 추니박의 개성화는 동양화가로서의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이룩되는 '자기 실천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보는 미국 풍경은 '오늘의 추니박'을 보여주지만, 향후 그림의 대상들은 점점 더 글로벌리즘의 영역에서 확장될 것이다.